

삶의 지혜 찾아 '인문학 나들이'

전남대 박물관·시민자유대학
인문학 강좌 다음달 첫 강의
고전 다시 읽기·영화 감상 등
문화 모티브 인간의 삶 고찰

새학기, 새봄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매년 문화강좌를 이어오고 있는 전남대 박물관과 시민자유대학은 이번에도 인문학 강좌를 준비했다. 문화를 모티브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삶을 고찰하는 인문학은 새로운 깨달음과 영감을 준다.



박규용 교수 김봉중 교수 정희남 교수 배병삼 교수

◇전남대 박물관
'고전에 비추어보다 Ⅲ'를 모티브로 3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한다.

'진달래꽃', '동방견문록',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죄와 벌' 등 시대를 초월해 변함없이 사랑을 받는 고전이 주제가 된다.

첫 강의는 3월 22일 김서형 연구교수(러시아 빅히스토리 유라시아센터)가 '역사를 읽는 키워드-제레미 다이아몬드 '총, 균, 쇠''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아울러 '철의 인간' 인류 모두의 이야기'를 시청할 예정이다.

3월 29일은 장문철 교수(순천대 문장교과)가 '김소월 '진달래꽃' 다시 읽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영화 '동방견문록' (4월 5일)을 강연하며 '쿠빌라이 칸의 류라시아 대제국' 다뤄도 감상한다.

고대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을 주제로 한 강의도 마련돼 있다. 4월 12일에는 임흥배 교수(서울대 독문과)가 전자블, 4월 19일에는 홍대화 강사(부산대 노어노문학과)가 후자를 강의한다.

정희남 교수(광주교대 미술교육과)는 '의미는 마음의 니침핀이다-생텍쥐페리 '어린왕자'를 이야기 하며 강연후 영화 '어린왕자'를 시청할 예정이다.

'아마존 원주민에게서 문명을 배우다-레비스트로스 '슬픈 열대' (5월 3일)는 노고은 교수(전남

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강의하며 광동근 강사(고려대 일문과)는 5월 10일 '죽음의 텍스트를 넘어서'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김중기 부산대 불어교육과 교수와 이인규 국민대 영문과 교수는 각각 '새로운 전율을 창조하다-보들레르 '악의꽃' (5월 17일), '불운과 역경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에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5월 24일)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동양의 고전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강좌도 있다. 배병삼 교수(영산대 자유전공학부)는 '위하지 말라, 다만 함께하라-맹자' (5월 31일)의 지혜와 철학을 들려준다. 마지막 강좌는 이찬규 숭실대 불문과 교수가 '비참 속에서 품어낸 희망-빅토르 위고 '레 미제라블'을 모티브로 시민들을 만나고 영화 '레 미제라블'을 시청할 예정이다.

접수는 선착순 350명 마감. 수강료는 일반 11만원, 만 65세 이상 경로자와 전남대 교직원 및 가족은 9만원. 문의 062-530-3584.

◇시민자유대학

모두 네 개의 강좌가 3월 6일부터 4월 27일(오후 7시-목요일 오후 2시)까지 네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먼저 월요일(3월 6일~4월 24일)에는 '학문적 성찰과 교육적 실천'을 주제로 모두 7명의 학자가 시민들을 만난다. 박규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자유와 빛과 그림자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비롯해 오현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언론과 교육, 그 사이에서 자유',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의 '시장의 자유와 협력의 경제학' 등 강좌가 열린다.

이밖에 김중기 패선큐레이터의 '패션, 자유를 만나다', 박종관 조선대 유럽언어문화학부 교수의 '동구권 국가에서 자유와 자유의식', 조영훈 전남대 불문과 명예교수의 '사르트르를 통해 본 비판적 지식과 자유', 장은주 영산대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자유와 두 개념'이 마련돼 있다. 장소는 광주교육연수원 기쁨관 중강당(북구 능안로 30번길 5)

화요일(3월 7일~4월 25일)은 장용석 독립문화기획자(전남도문화재단 비상임이사)가 '소리와 음악에 관한 인문학'을 강연한다. 모두 7강에 걸쳐 소리와 음악의 중요성과 활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소리가 음악으로 발현하면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효과에 대해 탐구한다. 전남대 인문대1호관 313호 현공세미나실.

수요일(3월 8일~4월 26일)에는 김봉중 전남대 사학과 교수의 '벌거벗은 미국사'가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된다. tvN 방송의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강의했던 미국사를 중심으로 미국사 전반에 대한 강의를 한다.

동서양고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있다. 목요일(3월 9일~4월 27일 오후 2시)에는 '에리히 프롬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전남대 강한 철학과 박사가 강연한다. 프롬의 사랑관을 토대로 우리의 사랑관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장소 장덕동 근대관 옥(장덕로 96번길 15)

접수는 시민자유대학 홈페이지 접속. 수강료 월요일 13만원, 그 외는 무료. 문의 062-961-11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인구 45만 여 명의 가나자와는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문화도시다. 에도시대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고도(古都)인 에다 지난 2002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공예창의도시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2004년 개관한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과 금박박물관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글로벌 명소다.

하지만 가나자와의 진가는 시민들의 문화지수에서 나온다. '한집 건너 예술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른 도시에 비해 아마추어 작가들이 많다. 그렇다고 가나자와 시민들이 처음부터 문화를 가까이 했던 건 아니다. 지난 1990년 대 초, 옛 방직공장을 시민들의 연습공간으로 리모

와 시민이면 누구나 3개월전 예약을 통해 6시간에 1000~3000원이라는 '착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머지 않아 광주에도 가나자와 부럽지 않은 '명품 복합단지'가 탄생할 것 같다. 광주시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상업·업무·문화·주거공간이 어우러진 마스터플랜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설계공모방식을 통해 '디자인'하기로 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최근 국제적 인지도와 전문성이 뛰어난 국내외 여덟 개 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5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후 기술 검토와 작품 심사를 거

옛 방직공장의 기적

델링한 '시민예술촌'이 문을 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프로페셔널 예술가들을 위한 갤러리나 공연장은 많지만 문화애호가들을 위한 연습실이 부족하자 가나자와시가 방직공장을 매입해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실제로, 수년 전 취재차 둘러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기대 이상이었다. 평일 낮인데도 시민예술촌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연극연습을 하는 주부들로 북적였다. 건물 안쪽에 자리한 스튜디오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방음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덕분인지 이들은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열정적인 연주를 펼쳤다.

이처럼 예술촌에 들어선 6개의 스튜디오에는 오케스트라, 밴드, 연극 등 각 장르의 활동에 맞는 시설과 장비가 비치돼 시민들은 '뭉툰 오만'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하루 24시간 개방하고 가나자

쳐 3월 20일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오는 7월까지 부지 개발 사업자와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30만㎡에 달하는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는 광주의 장밋빛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계적 거장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광주시의 따뜻한 지원, 지역사회의 관심이 맞물린다면 광주를 상징하는 꿈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려제강의 폐공장 일대를 핫플레 이스로 리모델링한 부산의 F1963에서부터 폐도축장을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허브로 되살려낸 상하이 1933, 100여 년 전의 탄광촌 수영장을 유럽문화수도의 발신지로 거군 프랑스 릴의 루베미술관 등은 문화로 도시의 미래를 꽃피운 현상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도시의 색깔을 바꾼 가나자와 방직공장의 기적을 광주에서도 만나고 싶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아니한가. <문화·여행칼럼, 선임기자>

'봄' 부르는 피아노 선율

정윤정 독주회 1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정윤정 피아노 독주회가 2월 16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리스트가 마리 다구 백작부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 뒤 함께한 여행의 기록물인 '순례의 해'에 속해 있는 '페트라르카 소네트 104'와 '두번째 해-이탈리아'를 선보인다.

이어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 들어주세요' 부제가 붙은 '모차르트 : 반짝반짝 작은별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과 차이코프스키의 '둘카', 1857년 베를린에서 한스 폰 빌로에 의해 초연된 '리스

트 소나타 나단조'를 무대에 올린다.

피아니스트 정윤정은 광주 예술고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뉴욕 맨하튼 음악대에서 피아노 연주 전공 석사학위,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피아노 교육 및 음악교육 관련 다수 학술 논문을 발표하며 광주피아노아카데미와 한국 피아노학회,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원 및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은 전석 1만 원이며 학생은 50% 할인된다. 문의 010-7720-5294. /김다민 기자 kdi@



광주 동구 어르신 건전 여가활동 지원

서예·미술·우쿨렐레 등 '백년동아리' 지원자 모집

광주시 동구가 백년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과목으로는 서예(15명)와 미술(15명), 북컬러링과 하모니카(20명), 우쿨렐레(15명), 탁구(15명), 요가(35명), 뜨개질(55명), 그라운드 골프(40명) 등이 있다.

장소는 학운동과 산수1동, 지월2동 마을사랑채와 용산체육공원 등 과목별로 상이하며 뜨개질은 3개반, 요가는 2개반, 그라운드 골프는 신규와 중급으로 나눠 2개 반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동구 주민으로 접수는 24일까지 진행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된 참여신청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복지

원과 온라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하모니카와 우쿨렐레의 경우 개인 악기를 지참해야 하며 서예와 북컬러링, 미술, 뜨개질의 경우 1인당 5만 원의 재료비가 요구된다. 그라운드 골프와 탁구는 별도 요구 사항이 없다.

심사는 1인 가구와 함께 복지관이나 경로당 미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지난해 뜨개질 작품을 기부받아 판매해 40만 원 가량을 아동복지센터에 기부하기도 했다. 또 하모니카와 우쿨렐레의 경우 재능기부 형태로 공연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문의 062-608-2604.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